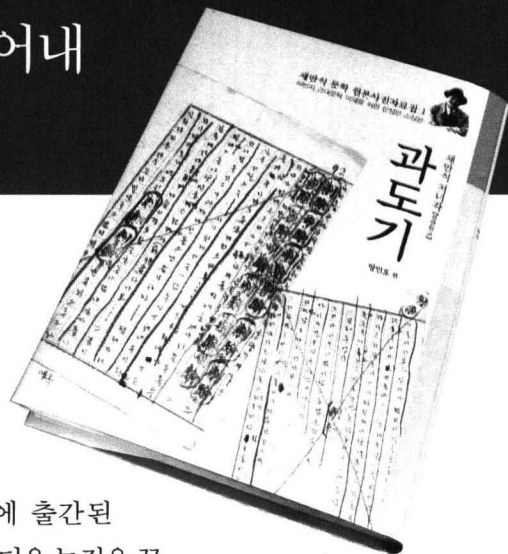


채만식 문학의 '아우라' 를 '날 것 그대로' 독자에게

1923년에 쓴 육필원고

83년 만에 원본사진 자료집으로 묶어내



백릉(白菱) 채만식(1902~1950년)은 장편소설 《탁류》(1937), 《태평천하》(1938)와 단편 〈레디메이드 인생〉 〈치숙〉 〈소망(少妄)〉 〈생명〉 등으로 일제 식민지 시대에 창작 활동을 했던 소설가이다. 채만식의 공식 등단작은 1924년 12월호 〈조선문단〉에 게재된 단편소설 〈세 길로〉로 알려져 있으나, 앞서 1923년에 처녀작 《과도기》를 집필했다. 이 작품은 일제시대 문학인들의 창작물 검열로 출판할 수 없었고, 83년 만에 칠필 원고를 만날 수 있게 됐다.

〈채만식 문학 원본사진자료집〉 시리즈의 기획자이자 편자인 방민호 교수(서울대 국문학, 문학평론가)는 “채만식은 한국의 근대소설가 중에서도 가장 한국적이면서 보편적인 가치를 모색한 문학인”이라고 설명하면서, “해방 이후 일제 말기의 대일협력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한 〈민족의 죄인〉과 〈낙조〉를 씌으로써 민족과 개인, 체제와 개인의 문제에 대한 깊은 천착을 보여준 작가”라고 덧붙였다.

친일논란 속에 나온 처녀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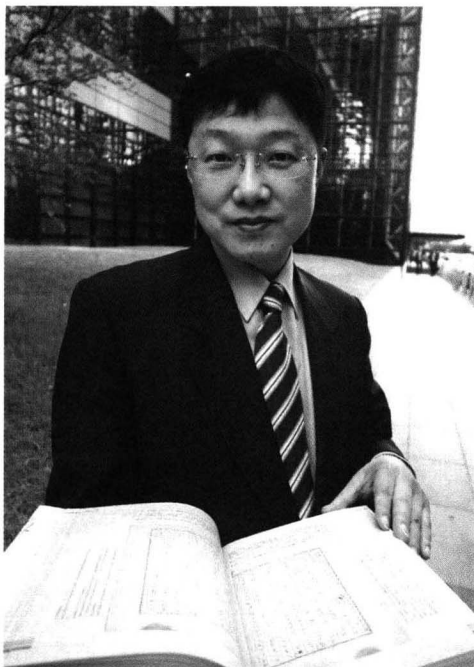
지난 10월, 채만식 문학상이 다시 부활하자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와 광복회 전북지부 등 도내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친일 청산을 위한 전북 시민연대’는 문학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군산문화원과 ‘채만식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2002년 백릉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를 기리는 문학상을 제정해 2003년과 2004년 문학상을 시상해왔으나 제3회 때인 2005년

에는 거센 친일논란으로 중단하기도 했다.

이런 시점에 출간된 《과도기》에서 더욱 눈길을 끈

다. 방 교수는 “어렵게 건립된 채만식문학관이 대일협력 문제가 논의되면서 이름이 바뀌어버릴지 모른다는 소식이 들린다. 친일문학행위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도 포함해 더 풍부한 문학관으로 만들고, 작가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이 더 다채롭게 담겨진 문학관으로 오히려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던 방 교수는 채만식 작품을 찬찬히 들여다보던 중에 작품이 가진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됐다. 육필원고를 소장하고 있었던 백릉의 둘째 아들 채계열 선생을 우여곡절 찾아가 친필원고를 접하게 됐다고 한다. 처녀작 육필원고는 240자짜리 세로쓰기 원고지(10줄 24칸)로 405장이다. 오늘날 200자 원고지로 환산하면 약 500매 분량의 장편소설이다. 안타까운 것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첫 장과 결말부분의 약 10~20쪽은 유실됐다. 방 교수는 “한국 현대문학을 전공으로 삼고 있는 탓에 가끔 육필 원고를 접하지만, 《과도기》 육필원고에 필적할 만큼 중요한 원본자료를 접해 본 기억이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행인의 독법》 《현대시 동인의 시세계》 《박인환 전집》 등을 출간한 1인 출판사 예옥 이승은 대표는 출판



채만식을 연구해오면서 인연의 힘을 느낀다는 문학평론가 방민호 교수.

에서 프로그램에 입력되지 않는 글자는 일러스트로 글자를 만들어 앉혔다. 현대역은 박미연(실천문학

는 도쿄역 플랫폼에서 배웅 나온 일본인 애인 영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근대문학사에서 일본여성과의 연애를 그린 작품은 많지 않다. 채만식의 《과도기》《냉동어》, 염상섭의 《만세전》 정도이다.

방 교수는 “민족이 다르고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민족의 여성과 연애를 한다는 점은 연애가 담고 있는 함의가 다르다”고 설명한다. 그 관계는 ‘민족문제’가 담겨 있다는 것. 표면적으로는 결혼했기 때문에 다른 이성과는 연애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이면에는 이민족 간의 사랑과 결혼이 가능한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이 내포돼 있다.

방 교수는 “《과도기》를 통해 채만식이 살다 간 시대를 이해하고 채만식 문학에 대한 이항대립적 논리를 떠나 채만식 문학을 깊이 있게 이해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아버지의 육필원고를 보관해 온 둘째 아들 채계열 선생은 안타깝게도 지

병으로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 채만식을 연구해 온 학자로서 인연의 힘을 느낀다는 방 교수는 “이번 작업을 통해 얻은 가장 큰 보람은 채만식 문학의 아우라를 독자들에게 온전히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내년에는 <채만식 문학 원본사진자료집>시리즈의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출간될 예정이다. **한민**



10년 넘게 출판편집자로서 외길을 걸어 온 1인 출판사 '예옥' 이승은 대표.

편집국장 아내)씨가 했다. 박미연씨는 전라도 방언에 친숙하고 채만식 작품세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위낙 세월이 오래돼 원고지에 난 얼룩 등 종이의 색깔 농도들이 달랐다. 편집과정에서 세월이 남긴 얼룩들은 그대로 남기되 일률적으로 원고지 색깔 톤을 맞추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1년 여의 작업과정을 거쳐 <채만식 문학 원본사진자료집> 시리즈(전 3권)의 첫 번째 작품인 《과도기》가 500부 한정판 소장본으로 제작됐으며 책마다 고유 번호가 매겨 있다.

이항대립적 논리를 떠나 채만식 문학을 깊이 이해해야

제목 ‘과도기’는 원고를 집필할 당시의 유행어였다고 한다. 내용 중 ‘과도기의 특산물 부스러기’라는 대사는 과도기라는 제목이 상징하는 주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작가는 당대 사회를 과도기로 보고 선진문화를 흡수한 젊은층이 겪는 의식의 균열과 그로 인해 부정적인 일탈행위로 나아가게 되는 과정을 소설로 표현한 것이다.

1923년이라는 해는 일본에서 유학중이던 채만식이 여름방학 중에 집으로 돌아온 시기다. 가세는 기울어 있고, 9월 18에 관동대지진까지 일어나 시국이 어수선해져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관동대지진 이후에 채만식이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심리적인 처지를 소설 속에서 읽을 수 있다”고 방 교수는 설명한다.

《과도기》 원본의 일부는 유실된 상태여서 독자들이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자의 설명이 본문의 앞과 뒤쪽에 추가됐다. 이 부분은 주인공인 정수가 일본을 떠나려